

보도시점 2023. 8. 29.(화) 배포 시 배포 2023. 8. 29.(화)

‘붉은불개미’ 부산항에서 발견, 긴급방제 실시

- 부산항 허치슨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 발견, 컨테이너 이동제한 및 통제라인 설치 등 긴급조치 실시

농림축산검역본부(본부장 김정희, 이하 검역본부)는 부산항 허치슨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(*Solenopsis invicta*)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.

8월 28일 검역본부는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 과정(국제식물검역인증원 조사 수행)에서 붉은불개미 50마리(일개미)를 발견하여 발견지점 반경 5m 이내 출입통제선과 방어벽 설치, 발견지점 반경 50m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(277대)는 이동 제한하고 소독 후 반출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하였다.

8월 29일부터는 예찰트랩 확대 설치(800여 개), 육안정밀조사 및 전문가 합동조사(환경부, 상지대학교 등 5명) 등을 통해 이번 붉은불개미를 방제해 나갈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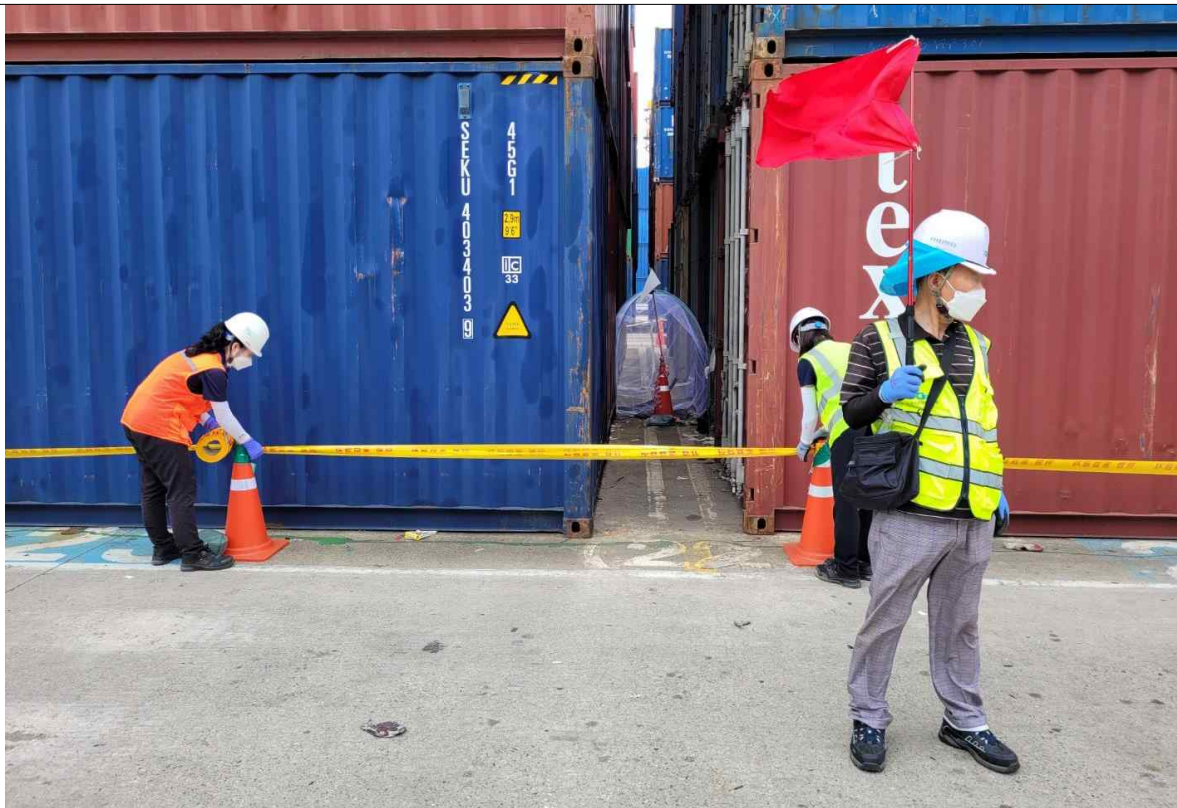
아울러, 검역본부는 외래 병해충 의심개체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(☎ 054-912-0616)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.

붙임 붉은불개미 발견 현장 사진

담당 부서	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	책임자	과 장	방문진 (054-912-0601)
		담당자	사무관	박정현 (054-912-0612)



< 발견지점(깃발) 표시 및 방어벽(비산방지망) 설치 장면 >



< 컨테이너 이동제한 장면 >